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대전(본원): 대외협력실 이종성 042 - 869 - 0976 / 최영진 0947
문의: 정책연구실 문희진 연구원(042-869-0816)

배포번호 : 2019-07

배포일자 : 2019.01.30

매수 : 보도자료 3매

배포처 : 대외협력실

사회 문제 해결의 열쇠, 빅데이터

- KISTI, '빅데이터 분석, 사회 문제 해결의 길을 열다' 이슈브리프 발간 -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하는 사회 문제의 진단과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은 최근 학계와 정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 이하 KISTI)은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사례와 주요 고려 사항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 KISTI 이슈브리프 : KISTI는 국가과학기술정보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최근의 국가·사회 이슈에 대해 폭넓은 조사와 정보/데이터 기반 분석 기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시사점,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함

KISTI 이슈브리프 보기 : <https://www.kisti.re.kr/promote/post/issuebrief?t=1548635573441>

최근 빅데이터 관련 학술대회에서는 사회 문제의 진단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국가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 설문 조사, 델파이 기법 등의 분석 방법은 복잡 미묘한 사회 문제의 이면을 들여다보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반면, 빅데이터 분석은 '정

확성과 범위', '상시적 분석 가능', '거시적 접근', '미래 예측력', '사회 현상의 정밀한 관찰' 및 '상호 비교 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 사회 문제의 진단과 발굴에 매우 유용하다.

미국은 지카(Zika)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 약 380만 개의 트위터 글을 통해 대중의 태도와 인식 변화를 분석하여 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였다. 덴마크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무인 자동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자동차 산업 정책 수립에 반영하였다. 콜롬비아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회 문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정교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측정하면서도 국가 정책과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분석 체계와 사회 문제를 장기간 추적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KISTI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생태계 조성 방안도 제시하였다.

KISTI와 관계 기관들은 유관 조직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화학 안전사고부터 미래사회 예측까지 사회 문제의 진단과 발굴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보였으며, 대부분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자료, 지식, 경험 등이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문제의 원인 파악부터 실효성 있는 해결책 도출까지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출연기관과 민간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사회 문제의 발굴부터 해결 방안 도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수요자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KISTI 최희운 원장은 “사회 문제로 인한 대중 간의 갈등은 국가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번 KISTI 이슈브리프 제5호를 통해 국내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들이 사회 문제의 진단과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KISTI 이슈브리프 제5호